

싱가포르의 경기논쟁

나희량 (부경대학교, 국제통상학부 조교수)

작성일: 2012년 5월 6일

■ 2012년 1/4분기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을 둘러싼 경기논쟁

- 2012년 1/4분기 싱가포르 경제는 2011년 동기 대비 1.6%의 성장률을 기록, 저조한 경제 성장세를 보임.
 - 이는 싱가포르 경제가 2011년 이후 전반적인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 (2011년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/4분기 9.1%, 2/4분기 1.2%, 3/4분기 6.0%, 4/4분기 3.6%, <표1> 참조).
- 하지만 전기 대비로 환산할 경우 9.9%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큰 폭 성장세를 시현
 - 이는 싱가포르 경제가 2012년 들어서서 2011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도 볼 수 있음(2011년 분기별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/4분기 19.7%, 2/4분기 -3.0%, 3/4분기 2.0%, 4/4분기 -2.5%, <표1> 참조).
- 이러한 상반된 경제성장률 결과로 인해 싱가포르 경제가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, 아니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인지에 대해 소위 ‘경기논쟁’이 제기됨.
 - 경기논쟁은 재정, 통화, 환율 등의 경제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사이클(business cycle)의 진폭을 조절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.

■ 싱가포르의 상반된 경제성장률의 원인 및 평가

- 싱가포르의 이러한 상반된 경제성장률 결과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고(GDP 대비 무역규모, 2011년 기준 348%)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 개방 경제(small open economy)로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.
 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선진국 진영의 경기침체, 유럽재정 위기의 지속,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2012년에도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.
 -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2012년 들어서서 싱가포르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, 통화, 환율 정책 및 경기조절을 위한 노력 등으로 제조업 및 건설 부문에서 높은 성장세(각각 전기 대비 14.7%, 24.6%의 성장률을 기록)를 시현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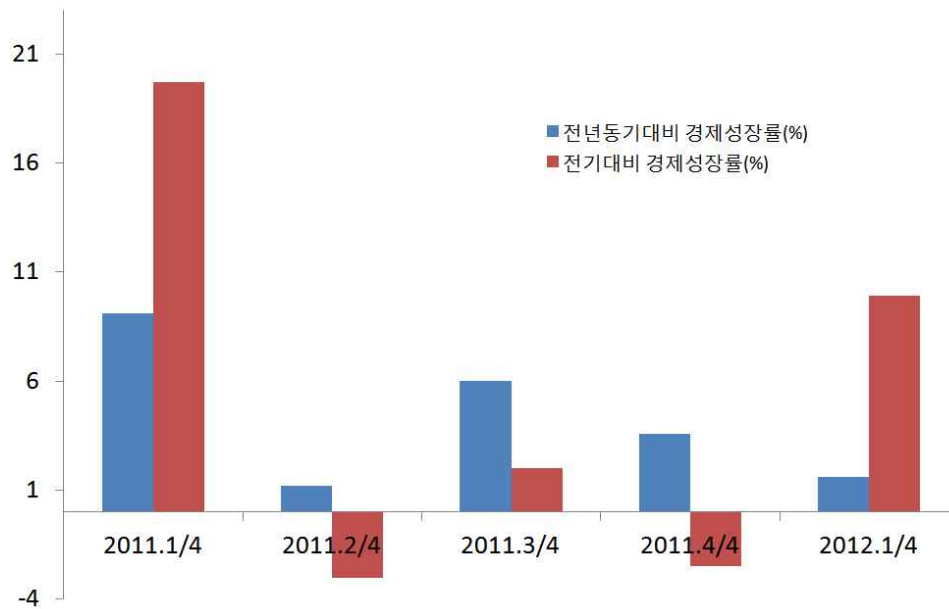
-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요소로서의 세계경제 침체와 이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 등의 결과가 혼재, 중첩되어 경제침체의 모습과 경기회복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- 이러한 현상은 비단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.
 - 2012년 1/4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2011년 동기 대비 2.8%의 성장률을 기록,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
 -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인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(2011년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/4분기 4.2%, 2/4분기 3.5%, 3/4분기 3.6%, 4/4분기 3.3%)
-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전기 대비로 환산할 경우 0.9%의 성장률을 시현
 - 이는 0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11년 4/4분기 이후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경기회복의 신호로 평가됨(2011년 분기별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/4분기 1.3%, 2/4분기 0.8%, 3/4분기 0.8%, 4/4분기 0.3%).
-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반된 경제성장률 결과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개방 경제의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 - 우리나라에서도 싱가포르와 유사한 경기논쟁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체적인 입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회복세가 가파를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함.

■ 향후 싱가포르 경제전망 및 정부정책 대응

-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2012년 싱가포르 경제가 3% 이하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 - 이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향세 등의 내부적 원인과 세계경제 침체 등의 외부적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임.
-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기 조절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.
 - 실질경제성장률이 잠재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(인플레이션갭)는 긴축적 재정, 통화 정책을, 반대로 실질경제성장률이 잠재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은 경우(디플레이션갭)는 확장적 재정, 통화 정책을 시행함.
 - 2010년, 2011년의 경우 경기의 회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, 전반적으로 긴축적 재정, 통화정책을 시행함.
- 하지만 위의 경기논쟁 속에서도 2012년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싱가포르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경제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.
 - 그 예로서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2011년 말부터 싱가포르 달러의 평가절하를 단행함으로써 저환율정책으로 선회.
 -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이 낮아지는 국면(2011년 5%대에서 2012년 3%대로 하락)에서 환율의 절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

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.

〈표1〉 싱가포르의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



※ 참고자료

-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, Singapore. *Singapore's Growth Momentum Improved in First Quarter, 2012*
-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, Singapore. *Macroeconomic Review, April 2012*